

아 산 서 평 모 임

- 제5회 -

주제도서

난학의 세계사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대에서 접촉하다

(이종찬, 알마, 2014)

일시: 2015년 11월 18일(수) 18:30 – 21:0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18:30~19:00	저녁 식사	
19:00~19:05	인사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19:05~19:10	연사자 소개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19:10~19:45	발제 및 지정토론	
발제 및 지정토론	사회자	정수복
	발제자	"난학, 일본 노벨상의 계보학적 기원"
		이종찬, 아주대학교
	토론자	"난학의 세계사와 세계화"
		보데원 알라번, 성균관대학교
		"『난학의 세계사』를 읽고"
	원재연, 전주대학교	
19:45~20:00	휴식	
20:00~21:00	자유토론	

주요 참석자 소개

발제자



이종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열대학연구소 소장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의사학 박사

【주요 저서】 『파리식물원에서 데지마박물관까지』(해나무, 2009)

『열대와 서구: 에덴에서 제국으로』(새물결, 2009)

『의학의 세계사』(몸과마음, 2009)

토론자



보데윈 왈라벤 Boudewijn Walraven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석좌교수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인류학 박사

【주요 저서】 『보물섬은 어디에: 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공저)

『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공저)



원재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

【주요 저서】 『순교자의 삶과 신앙』(도서출판형제애, 2014)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신인문사, 2011)

『이미 우리가 된 이방인들』(동녘, 2007)

사회자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EHESS 사회학 박사

【주요 저서】 『책에 대해 던지는 7 가지 질문』(로도스, 2013)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생각의나무, 2012)

『파리를 생각한다』(문학과지성사, 2009)